

다니엘서 - 번호 148

예언의 도표 공개: 하박국의 환상과 밀러의 꿈

Jeff Pippenger

2024-03-20

울라이 강의 환상이 나타내는 지식의 증가는 결국 하박국의 두 판에 기록된 것이다.

그들이 재림의 때에 해당한다고 여겨 온 예언들과 함께 엮여 있었던 것은, 그들의 불확실과 초조함의 상태에 특별히 맞추어진 교훈이었으며, 지금은 그들의 이해에 어두운 것이 때가 되면 분명해질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예언들 가운데에는 하박국 2:1-4의 예언이 있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대 위에 나를 세우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와 내가 책망을 받을 때 무엇으로 대답할지를 보기 위하여 지켜보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환상을 기록하여 판에 분명히 새겨, 읽는 자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라. 이 환상은 아직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끝에는 성취되어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이를 것이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스스로 높아진 자의 영혼은 그 속에서 정직하지 아니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별써 1842년에, 이 예언에서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쓰고, 읽는 자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라'고 주어진 지시는 찰스 피치에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설명하기 위한 예언 도표를 준비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이 도표의 출판은 하박국을 통해 주어진 명령의 성취로 여겨졌다. 그러나 그때에는 같은 예언 속에 환상의 성취가 겹보기에 지체되는 시기(지체의 때)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아무도 주목하지 못했다. 그 실망 이후에 이 성경절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보였다: '이 묵시는 아직 정한 때를 위함이니, 끝에는 그것이 말할 것이며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이는 반드시 이를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The Great Controversy, 391, 392.

하박국의 두 서판은 예언적으로 두 증인이다. 성경적으로는 진리를 확증하려면 두 증인을 함께 세워야 한다.

그러나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게 하려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마태복음 8:16.

하박국의 두 도표(1843년과 1850년 개척자 도표)를 서로 포개어 보면, 그것들은 밀러가 꿈의 '보석들'이었던 진리들을 확증한다. 첫 번째 도표에 나타난 1843년의 실수는 두 번째 도표와 겹쳐 볼 때 그 묵시의 '지체하는 때'를 정립한다. 밀러는(그 역사의 상징적 파수꾼으로서) 자신의 역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물었다.

나는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와 내가 책망을 받을 때 무엇이라 대답할지를 보기 위해 지켜보리라. 하박국 2:1.

주님은 밀러에게 그 환상을 기록하라고 지시하셨고, 그의 꿈속에서 그는 그 환상이 담긴 상자를 방 한가운데 있는 탁자 위에 놓았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분명히 새기되, 읽는 자가 달릴 수 있도록 하라. 하박국 2:2.

그런 다음 표는 지체 시간과 첫 실망을 보여준다.

이 묵시는 아직 정한 때를 위한 것이요, 마침내 말하여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반드시 오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2:3

그런 다음 지식의 증가에 따라 드러나는 두 범주가 제시된다.

보라, 그의 영혼이 높아져 그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4.

두 부류의 예배자들은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시험 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이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봉함되었음이라.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고 연단을 받을 것이나,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다니엘 12:9, 10.

다니엘서의 "지혜로운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들이며, 악한 자들은 교만해져 스스로 높아진 미련한 처녀들이었다. 밀러의 꿈의 끝에서 그 보석들은 열 처녀의 비유에서의 기름을 상징했는데, 그 기름은 곧 메시지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신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에 부어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시려는 금빛 기름을 거절한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부르심이 올 때, 거룩한 기름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직하지 않은 자들은 미련한 처녀들처럼 그들의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 안에 그 기름을 얻을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생애는 파선된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7년 7월 20일.

마지막 때에 밀러의 보석들은 열 배 더 밝게 빛날 것이며, 열이라는 숫자와 빛은 모두 시험을 상징한다. 마지막 때, 곧 밀러의 꿈의 끝부분으로 상징된 때에, 하박국의 판들에 제시된 진리의 빛은 시험 기별을 낳는데, 그것은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말하는 한밤중 외침의 시험 기별이다. 그 시험 과정은 밀러주의 역사에서의 시험 과정을 반복한 것이다. 이는 열 처녀의 비유가 마지막 때에 글자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열 처녀의 비유로 인도된다. 그 가운데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어리석었다. 이 비유는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이는 이 시대에 특별한 적용이 있으며,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성취되어 왔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여 현재의 진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view and Herald, 1890년 8월 19일.

지체의 때의 경험은 밀러의 꿈의 끝에서 글자 그대로 반복될 것이며, 그때 그의 보석들은 해보다 열 배 더 밝게 빛나게 되어, 그 보석들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마지막 시험을

대표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열은 시험을 상징하며, 열흘이 끝났을 때 다니엘과 세 동무는 바벨론의 식단을 먹던 자들보다 겉모습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찌게 되었다. 믿음이 아니라 오만한 독단으로 사는 하박국의 교만한 자들은 바벨론의 품성을 이루었고, 밀러 운동의 역사에서 그들은 바벨론의 딸들이 되었으며, 하박국에서는 그들의 품성을 드러내는 표상으로 교황권이 사용된다.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는 포도주로 인해 범죄하며, 교만한 자라 집에 머물지 못하고, 그 욕망을 스올처럼 넓히며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민족을 자기에게 모으며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쌓아 모으느니라. 이 모든 자들이 그를 대적하여 비유를 들어 말하며, 조롱의 속담으로 이르기를,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어느 때까지냐? 두꺼운 진흙으로 자기에게 짐을 지우는 자여! 너를 물어뜯을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아니하겠느냐? 그때에 네가 그들의 노략거리가 되리라. 네가 많은 나라들을 약탈하였으므로, 모든 백성의 남은 자들이 너를 약탈하리라. 사람의 피와 땅과 성읍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행한 폭력 때문이라. 하박국 2:4-8.

마태복음 25장의 처녀들에게 임한 시험의 과정은 북방의 왕(교황권)의 품성을 갖게 된 한 부류의 예배자들을 만들어 내는데, 이 북방의 왕은 또한 '많은 나라들을 약탈한' 권세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백성이 북방 땅에서 오며, 땅 끝에서 큰 나라가 일어나리라. 그들이 활과 창을 잡고, 잔혹하여 긍휼이 없으며, 그들의 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고, 그들이 말에 타고 시온의 딸아 너를 치려고 전쟁하는 자들처럼 전열을 갖추었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우리의 손이 힘이 빠지고, 괴로움이 우리를 사로잡았으며, 해산하는 여인 같은 고통이 임하였도다. 들로 나가지 말며 길로 다니지 말라. 이는 원수의 칼과 두려움이 사방에 있음이라. 내 백성의 딸아, 굽은 베로 허리를 동이고 재에 뒹굴라. 외아들을 잃은 것같이 지극히 쓰라린 애곡으로 애통하라. 이는 약탈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덮치리라. 예레미야 6:22-26.

하박국이 구별한 두 부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과 바벨론의 교리를 먹고 마신 자들이다. 밀러의 꿈의 마지막 때에 처녀로 묘사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형성하여 이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거나, 교황권의 품성을 형성하여 짐승의 표를 받는다.

도덕적 어둠 한가운데에서 참된 빛이 빛날 때가 왔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선포되어,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이나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 한 것과 같은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같은 사상을 옹호하는 것을 뜻한다. 이 표를 받는 모든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그분의 분노의 잔에 섞임 없이 부은 것을 마실 것이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리뷰 앤드 헤럴드, 1897년 7월 13일.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는 처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사물을 거꾸로 뒤집음으로써 그들의 눈먼 취함을 드러내며, 그런 행위는 '토기장의 진흙'으로 여겨진다.

"the daily"를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the daily"의 진리를 뒤바꾸는 것이다. 왜냐하면 "the daily"는 사탄적 상징이기 때문이다. 밀러가 "the daily"를 이교로 동일시한 것은 하박국의 판들 위에 직접 제시되어 있다. 밀러는 데살로니가서의 한 본문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 "죄의 사람"이 드러나기 위하여 "제거된" 것이 바로 이교였음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주요 진리이다.

"나는 계속 읽었지만, 그것([the daily])이 발견된 다른 경우는 다니엘서에서밖에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성구 색인의 도움으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 '제거하다;' '그가 [the daily]를 제거할 것이다;' '[the daily]가 제거되는 때부터;' 등을 뽑아 살펴보았다. 나는 계속 읽으면서, 이 본문에 대해 아무런 빛도 찾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데살로니가후서 2장 7, 8절에 이르렀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역사하거니와,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자가 있어 그가 길에서 치워질 때까지 막을 뿐이라. 그 후에 그 사악한 자가 나타나리라' 등등. 그리고 그 본문에 이르렀을 때, 오, 진리가 얼마나 분명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났는지! 바로 그거다! 저것이 바로 [the daily]다! 자, 이제 바울이 '지금 막고 있는 자', 곧 방해하는 자로 무엇을 뜻하는가? '죄의 사람'과 '사악한 자'로는 교황주의를 말한다. 그렇다면 교황주의가 드러나는 것을 무엇이 가로막는가? 바로 이교다. 그렇다면 'the daily'는 이교를 뜻해야 한다." — 윌리엄 밀러, Second Advent Manual, 66쪽. Advent Review and Sabbath Herald, 1853년 1월 6일.

밀러가 발견한, 데살로니가서에 나타난 "the daily"의 의미는 그 본문의 주된 진리이다. 바울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러므로 강한 미혹을 받게 될 자들을 지목할 때, 그는 분명히 일반적 의미에서의 진리에 대한 증오를 지적하고 있으나, 그 본문이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진리는 "the daily"가 이교 로마를 가리킨다는 진리이다.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요, 네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22-24.

오직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거나 진리에 대한 미움이 있을 뿐이다. 중간은 없다. 마태복음 25장의 미련한 처녀들에게 임하는 강력한 미혹은 최종 시험을 대표하는 밀러의 보석의 빛을 그들이 거절한 데 근거한다. 고대 이스라엘의 최종 시험은 그들의 열 번째 시험이었고, 마지막 날들에 밀러의 보석들은 열 배 더 밝게 빛난다. 밀러의 보석들을 거절하는 상징은 "the daily"이며, 재림주의 제3세대에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그것을 거꾸로 뒤바꾸었다. "the daily"는 이교의 사탄적 상징이다. 그 술 취한 자들은 "the daily"를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규정하는 배도한 개신교에서 가져온 가짜 보석을 도입했다.

밀러의 보석들에 대한 이해는 그가 자라난 역사적 배경에 의해 제한되었다. 재림이 다음 예언적 사건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1798년에 교황권이 입은 치명상은 다니엘서 2장의 네 번째이자 최후의 지상 왕국을 나타내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었다. 밀러는 "the daily"에 대한 이해에서도 제한을 받았는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계시를 통해 특정한 연구 방법으로 인도되었고, 그 방법에서 성경과 Cruden's Concordance를 사용하고

신문을 몇 가지 읽었다고 했다.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겠다는 그의 결정은 그저 그의 마음에 떠올랐을 뿐이었다.

이신론자였던 열두 해 동안 나는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역사서를 읽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다. 성경은 예수에 관하여 가르쳤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 가운데는 내게 어두운 부분이 적지 않았다. 1818년이나 1819년에, 내가 방문하여 담소하고 있던 한 친구—그는 내가 이신론자였을 때 나를 알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었던—에게서, 그는 다소 의미심장한 태도로 내가 이신론자였을 때 이의를 제기하곤 하던 옛 구절들을 가리키며 “이 구절과 저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오?”라고 물었다. 나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대답했다. “시간을 주신다면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오?”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해될 수 없는 계시를 주셨을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성령께서 뜻하신 바를 알아낼 수 있으리라 믿고 성경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이 결심을 하자마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만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자 성경을 공부하는 이러한 방법이 내게 떠올랐다. 곧, 그런 구절들의 단어들을 뽑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추적함으로써,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의미를 찾아내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크루든의 성구대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것과 성경을 들고 책상에 앉아, 신문은 조금 읽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은 전혀 읽지 않았다. 내 성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로 굳게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아폴로스 해일, 재림 지침서, 65.

밀러의 보석들은 단지 그의 연구 방법으로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로도 알려졌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 성경을 믿지 않던 한 농부의 마음에 역사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예언들을 탐구하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택함받은 자를 거듭 방문하여 그의 마음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나 어두웠던 예언들을 그의 이해에 열어 주었다. 진리의 사슬의 시작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는 고리 하나하나를 찾아 계속 탐구하도록 인도되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경이와 경탄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완전한 진리의 사슬을 보았다. 그가 영감되지 않은 것으로 여겼던 그 말씀이 이제 그의 시야 앞에 그 아름다움과 영광 가운데 펼쳐졌다. 그는 성경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을 보았고, 어떤 구절이 그의 이해에 닫혀 있을 때에는 말씀의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쁨으로, 그리고 가장 깊은 존경과 경외심으로 대하였다.” Early Writings, 230.

화이트 자매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밀러에게 보내셨다고 말할 때, 이는 밀러에게 보내신 천사가 가브리엘이었음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그분의 천사’라는 표현은 가브리엘에게 부여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천사의 말, 곧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그의 말은 그가 하늘 궁정에서 높은 영예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가 다니엘에게 기별을 가지고 왔을 때, 그는 “나와 함께 이 일들을 대항하여 굳게 서 있는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그리스도] 외에는 없느니라”라고 말했다. 다니엘 10:21. 구주께서는 계시록에서 가브리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고 하셨다. 요한계시록 1:1.』 시대의 소망, 99.

가브리엘과 다른 천사들은 밀러의 마음을 인도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곧 어두웠던 예언들을 그가 이해하도록 열어 주었다. 그의 기별은 단지 그의 연구 방법의 산물만이 아니었고, 신적 계시를 통해서도 주어졌다. 성경을 연구하기 위하여 그가 사용한 바로 그 방법 자체가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가져다주실 때, 그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과정을 통해 진리에 이르는 것과는 구별되는 신적 계시이다. 밀러는 둘 다 행하였으나, 그가 "the daily"라는 주제를 이해하게 된 과정에는 신적 계시가 한 부분이였다.

밀러는 다니엘서 8장 9절부터 12절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성의 변동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것이라곤 성경과 성서 원어에 관한 정보가 전혀 실려 있지 않은 콘코던스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둘 다 "take away"로 번역되는 'sur'와 'rum'의 구별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둘 다 "sanctuary"로 번역되는 'miqdash'와 'qodesh'의 구별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성경에서 104회 등장하는 '타미드'라는 단어에 관한 진리를 그는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보지 못했을 진리(또한 그가 보았던 진리이기도 한데)는 다음과 같다. 성경에서 히브리어 '타미드'가 104회 사용되지만, 히브리어 '타미드'가 명사로 사용된 것은 오직 다니엘서에서뿐이다. '타미드'는 '끊임없는'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이며, 다니엘서에서는 '매일의 것'으로 번역된다.

그 단어가 명사로 사용된 것은 오직 다니엘서에서만이며, 다른 아흔아홉 번은 부사로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의 다른 모든 저자들이 그 단어를 아흔아홉 번이나 부사로 사용했는데 다니엘은 그 단어를 다섯 번이나 명사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증거의 무게 때문에 다니엘의 명사적 사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니엘을 '수정'하기 위해 그들은 그 단어에 '제사'라는 단어를 덧붙였고, 그리하여 명사를 부사로 바꾸었다. 그리고 번역자들을 바로잡기 위해, 엘렌 화이트는 영감을 받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Daily'와 관련하여, 'sacrifice'라는 단어가 인간의 지혜로 보충된 것이며 본문에 속하지 않음을 보았고, 또 주께서 심판의 시각의 외침을 전한 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주셨음을 보았다."

밀러는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the daily'를 이해하려고 했고, 결국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그것을 이해했다. 또 그의 증언에 따르면, 어떤 단어를 이해하려 할 때 그는 그 단어가 사용된 모든 곳을 살펴보곤 했으며, 그 단어는 성경에서 아흔아홉 번이나 더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daily'에 대한 그의 증언은, 그가 그것을 다니엘서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나는 계속 읽어 나갔으나, 그것[the daily]이 발견되는 다른 경우는 다니엘서밖에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밀러는 그의 연구 방법만으로도 아니라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 신적 계시에 의해서도 보석들로 인도되었다.

이 때문에 그가 "the daily"에 대한 이해는 옳았지만 제한적이였다. 그는 다니엘서에서 "the daily"가 다섯 번 언급되는데, 그 가운데 "the daily"가 "제거된다"고 표현된 세 번 중 한 번은 나머지 두 번과는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한 번은 "the daily"가 히브리어 'rum'과 함께 쓰이고, 나머지 두 번은 히브리어 'sur'과 함께

쓰인다. 두 단어 모두 '제거하다'로 번역되지만, 다니엘서 8장 11절에서 'rum'은 들어 올려 높인다는 뜻이고,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서는 'sur'은 제거한다는 뜻이다.

바벨론식 식단을 먹고 마시는 신학자들은, 무언가를 제거하든 무언가를 들어 올리든 둘 다 일종의 제거를 나타내므로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the daily"가 "taken away"된다고 나오는 세 번 모두가 항상 제거를 뜻한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니엘이 단어 선택에 부주의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들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는 다니엘이 세 경우 모두에서 'sur'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야 했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 신학자들에 따르면 "the daily"가 "taken away"될 때마다 그는 매번 같은 뜻을 의도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8장 11절부터 14절에서 "sanctuary"로 번역되는 'miqdash'와 'qodesh'라는 단어도 같은 식으로 다룬다. 그 네 절에서 "sanctuary"가 언급되는 각 경우마다, 그들은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를 따르면, 다니엘은 그 세 차례의 언급 모두에 'qodesh'만을 사용했어야 했고 11절에서는 'miqdash'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한다. 밀러는 그 단어들 사이의 구별을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현대 신학자들은 그것을 인식하면서도 아무 구별도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그 단어들의 구별을 인식하지 못했던 밀러는 현대 신학자들과는 정반대의 이해에 이르렀다.

사실 다니엘은 히브리어에 능통한 신중한 저자였고, 바벨론의 다른 모든 지혜자들보다 열 배 더 지혜롭다고 평가받았다. 히브리어의 올바른 용법과 그것이 그 특정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정확히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이 서로 다른 단어들을 사용했다면, 그것들은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다니엘이 "sanctuary" 또는 "take away"로 번역되는 단어들을 구별해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면, 그것은 "the daily"에 대한 밀러의 이해를 뒷받침한다. 그 이해는 바울이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은 강한 미혹을 받게 되리라고 밝히는 바로 그 본문에서 밀러가 파악한 것이다.

진리를 미워하고 강한 미혹을 낳는 거짓을 믿는 자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로도 표상된다. 한 부류는 학식 있는 지도자들이고, 다른 부류는 무지하여 학식 있는 자들이 가르치는 것만 들을 뿐인 자들이다. 그들은 거짓 아래 숨어 있으며, 죽음과 언약을 맺는 자들이다. 그들은 마태복음 25장의 미련한 처녀들이며, 하박국 2장에서 마음이 높아진 자들이다. 그들은 밀러의 꿈의 기초적 진리들을 거절하는 자들인데, 그 진리들은 끝에 가서 열 배 더 밝게 빛나며(현대 이스라엘의 열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을 상징하며), 이는 고대 이스라엘의 열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으로 예표된 바와 같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격노하게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인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유업에서 끊으며,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러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를 들으리이다(주께서 주의 큰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리셨사오니). 그들이 이 땅의 주민들에게 그것을 전하리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주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시고,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서 행하신다는 말을 들었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 온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그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간구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이 크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곧 주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오래 참으시며 인자하심이 크시어,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되, 유죄한 자를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들의 죄악을 자녀에게 삼사 대까지 벌하시는 이시니이다' 하셨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주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말한 대로 내가 사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참으로 맹세하노니, 온 땅이 여호와와 영광으로 충만하리라. 이는 애굽과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나의 영광과 이적을 본 그 모든 자들이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음성에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분노케 한 자들 중 그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와 함께 다른 영이 있어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가 들어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11-24